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특집 / 농외소득정책의 발전방향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정 기 환*

Abstract

Green tourism in Korea was introduced in 1984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However, it was not so satisfactory. In this respect, some policy measures for renovating green tourism are emerging. First, green tourism must be approached by a rural village unit since a Korean farm is not big enough to provide green tourism as in European countries. A rural village could provide natural rural scenery and culture while farmers in the village could operate B&B, farm restaurants, and tourism farms. Second, green tourism must be based on people's interaction between rural-urban areas for better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vitalize rural community by visiting people, purchasing farm products and experiencing farming and rural culture. Third, most rur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must be linked to enhancing green tourism in rural community.

1. 서 론
2. 그린투어리즘: 용어와 개념
3.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도입 배경

4.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5. 결 론

1. 서 론

1994~1999기간 중 우리나라 농산물 실

질가격이 연평균 1.7%씩 하락하였고 농가의 실질 농업소득도 연평균 3.4%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8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10년이면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의 70.9%에 달할 것으로 전망(KREI전망

* 연구위원

2001)됨에 따라서 농외소득증대가 중요한 농정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외소득원 개발촉진법(1984)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을 제정하여 농외소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농가 인력의 노령화와 WTO 체제 이후의 시장개방, IMF 이후의 경기후퇴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농외소득 정책으로는 농가의 소득증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의 대량 이농으로 농가의 농외취업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5~1999기간 중 농외취업 인구는 호당 0.37명에서 0.2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농외취업이 가능한 25~49세 연령층의 구성도 호당 0.95명에서 0.8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공단지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농외취업에 의한 농가소득은 앞으로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도시의 관광객을 농촌지역의 쾌적한 전원형 휴식 공간에 유치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관광농업정책이 198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관광농업정책은 농어촌발전특별법(1990)과 농어촌정비법(1994)을 통하여 농촌관광(rural tourism)으로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지역의 유희자원을 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농촌관광정책의 핵심적 역할

을 해온 다수의 관광농원이 부실경영 상태에 처해 있고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효과, 특히 농가의 농외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농촌관광사업의 효과가 미흡하자 정부는 1999년부터 신규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고 기존 농어촌휴양단지개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 검토와 함께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써 논의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도입과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2. 그린투어리즘: 용어와 개념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과 함께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등이 혼용되고 있다. 또한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한 개념은 국가와 지역, 또는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적용하기로 한다.

대안적 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은 대중적 관광(mass tourism)에 대응하는 개념이

다. 대중적 관광이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외지의 대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행태라면 대안적관광(alternative tourism)은 대중적 관광의 대규모 시설 설치와 대규모 관광객 유입으로 나타나는 환경파괴와 관광자원 고갈 등 대중적 관광의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한 관광행태를 말한다(Cohen, 1987). 즉, 대안적 관광은 지역의 자원과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소규모 관광시설과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유치·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도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거나 관광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의 하나다¹.

농업관광,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 생태관광 등은 대안적 관광에 속하는 관광행태의 하나를 의미한다.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²은 농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민박제공, 농사체험

등 농업생산 또는 이와 관련된 것을 관광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광농장(farm tourism)은 농업관광의 보다 구체적인 실체가 된다.

농업관광의 형태는 국가와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그 특성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 단위가 작은 사회에서의 농업관광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체험 민박과 음식 및 농산물 판매행위를 관광대상으로 한다면 농장 단위가 큰 유럽국가에서는 농장안에서 일어나는 농업관련 생산 및 판매, 승마와 낚시, 워킹, 스포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관광대상으로 한다.

농촌관광(rural tourism)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관광지나 유원지와 같은 대중적 관광 행태도 농촌지역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농촌관광의 범주에 든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관광은 농촌의 특성(rurality)을 바탕으로 작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간의 만남을 중시하는 관광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European Parliament, 1996). 협의의 정의에 의할 때, 농촌관광은 농업관광의 행태에 추가하여 농촌환경, 자연생태, 농촌생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관광의 대상으로 한다. 농촌관광은 작은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업인 농업이나 생활문화, 농촌의 경관과 환경 등을 도시민들과의 교류·체험을 통하여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리는 관광행태가 된다. 따라서 농업관광은 농촌관광의 하위 범주에 속하

¹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원이 황폐된 예로 제주도의 백록담, 지리산 노고단의 철쭉 및 원추리 등을 들 수 있다.

²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과 관광농업(tourism agriculture)는 같은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용어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관광의 한 형태로서 농업관광을 의미하며 후자는 농업의 한 형태로서 관광농업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관광행태를 논의하므로 관광농업보다는 농업관광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관광농원(tourism farm)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형태를 의미하며 농장관광(farm tourism)은 농장에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서비스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게 되며 관광농원은 농촌관광의 한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생활문화까지도 관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관광이나 관광농장 보다 넓은 개념을 갖는다.

생태관광(ecotourism)은 아프리카 초원의 동식물을 관광하는 것으로부터 남극이나 북극 탐험, 열대 우림의 동식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에 대한 관광, 서해 바다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탐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태를 지니고 있다. 생태관광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광 대상으로 하며 가급적 자연적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찰과 감상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체험이나 인간적 만남,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관광이나 농촌관광과 다르다.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은 인간과 자연,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의 세가지 관광행태가 지니고 있는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과 농업관광, 농촌관광, 생태관광을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³.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은 위의 세가지 관광행태와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관광을 위한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농촌지역사회의 인문,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광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까지 관광농업이나 농촌관광은

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숙박과 위락시설 중심의 관광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관광농원이 도시의 대중적 관광의 아류를 지향한다는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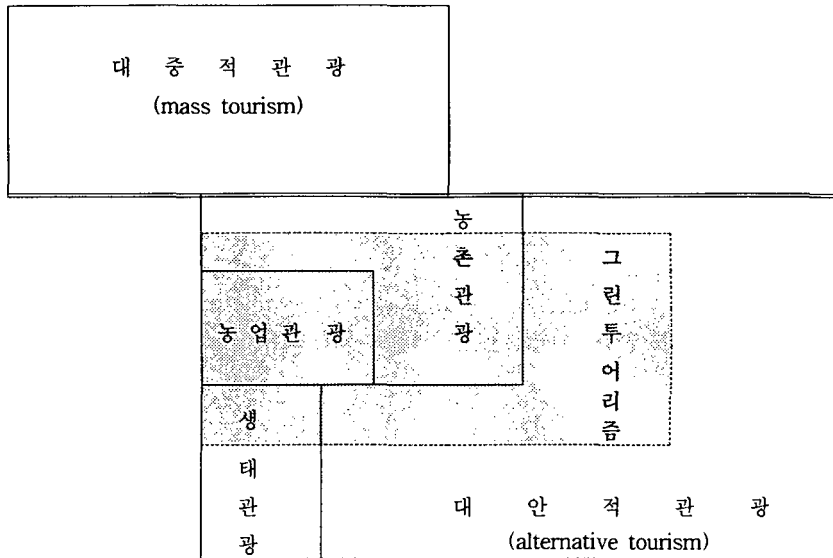
둘째, 그린투어리즘은 도시 관광객이 농촌을 방문하여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 농림성의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는 1992년도 보고서에서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농산어촌에서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라고 그린투어리즘을 정의하고 있다. 관광농원이 농원 내의 위락시설과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중심이라면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전통문화, 그리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사람들간의 만남을 중시하는 관광행태가 된다.

셋째, 그린투어리즘은 기본적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풍요로움과 문화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행태이므로 지역가꾸기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지역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가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⁴.

³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농촌관광과 그린투어리즘을 유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⁴ 이와 반대로 농촌지역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정서적 풍요로움과 고유한 문화가 있을 때, 도시 사람들은 그곳을 찾게 되고 그린투어리즘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도시인

그림 1 관광산업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의 위치와 영역



우리나라의 농림부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잠정 정의하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산촌에는 농산물 판매, 가공특산물 생산·판매, 관광·음식물 판매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부,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농업관광과 농촌관광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은 농림부가 정의한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한

다.

3.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도입 배경

3.1.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도입 배경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려는 정책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광농원 중심의 농촌관광정책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1984년 이후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통하여 농어촌정비와 농업관광 및 농촌관광에 힘써왔다. 2000년까지 491개소의 관광농원과 266개의 민박마을을 조성하였고 8개소의 농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였다. 2000년까지 관광농원개발사업에 1,231억원, 민박마을조

들의 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마을 경관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생활환경, 풍요로운 인간정서를 함양해야 한다.

성에 252억원,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에 16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관광농원의 72.0%가 시설에 대한 초기투자 과잉 등으로 부실경영 상태에 처해 있고 특히 IMF 이후의 경영 불안정으로 많은 관광농원이 휴·폐업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유승우, 민상기, 1997; 농림부, 2001). 관광농원은 80.0%가 1인 중심의 개별 경영체로서 인근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관광농원이 농가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박마을의 경우에도 관광지를 방문하는 도시인을 대상으로 단순한 민박경영에 그쳐 농가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향토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농특산물 구매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농림부, 2001).

이와 같은 평가에 기초해 볼 때, 기존의 관광농원 중심의 농촌관광정책으로는 WTO 체제 이후 등장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감소 문제와 지역사회의 활력상실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존의 관광농원 정책과 다른 시각에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관광사업은 농촌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소득증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농림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

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따라서 농림업과 농산촌 문화에 대한 체험·교류·여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관광농원만으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농촌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5년도에 국민총관광객수는 177.3백만명에서 1999년도에는 272.6백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연금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의한 노령층 관광객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2010년에는 총 국민관광객 수가 606백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국관광연구원, 2001)되며 이 중에서 60% 이상의 관광객이 농촌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소득의 향상,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등 국민의 의식전환에 따라서 농업·농촌의 체험형 여가활동으로 정의되는 그린투어리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수준과 의식 향상에 따라서 국민들은 건강, 환경, 생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정보사회의 특징인 개성과 다양성의 추구는 관광행태에서도 획일적인 대중적 관광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환경, 지역의 산업에 보다 큰 가치를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안전한 농식품과 농업생산활동, 지역별로 고유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건전한 생태환경 등은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농원만으로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제까지의 관광농원이 농원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마을 등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 농업인들의 생활문화 및 농림업 생산활동 등과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림업·농산촌의 다면적 가치를 상품화하여 도·농교류를 통하여 도시인들에게 제공하고 이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린투어리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이농으로 농가의 노동력 구조가 노령화되고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농촌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과도하게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등 농업자원이 유희화되고 전통문화가 상실되고 있다(정기환 등, 1999). 따라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경우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 문제가 대두된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젊고 생산성 높은 인구가 농촌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이와 병행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을 촉진하여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지역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중심으로 농촌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농·소·정협력사업으로 도·농

교류사업을 지원하여 농림업과 농산촌의 생활 체험에 의한 상호 이해 증진과 농업과 우수 농산물에 대한 홍보, 정보교류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등에 기여해 왔다. 도·농교류사업은 도·농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숙박과 음식물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농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전통 음식과 주류, 전통공예, 전통음악 등 농촌문화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발굴·양성할 수 있고 이들에게 일자리 등 소득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파괴,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농식품의 오염 가능성 확대,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증대 등으로 깨끗한 환경과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는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농림업과 농산촌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농교류사업이 도시민의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농촌주민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농촌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때, 농촌지역사회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여 도·농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농촌마을의 환경정비, 농촌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문화의 창달 등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3.2. 외국의 그린투어리즘 도입 배경

3.2.1. EU

EU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촌관광(rural tourism)⁵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농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농촌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관광행태를 의미한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도 도시형 대중관광행태가 일어날 수 있지만 EU의 농촌관광은 도시형 관광행위를 제외한 농촌형 관광을 의미한다.

EU 의회는 농촌관광진흥이 역내 농가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추가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농촌관광 진흥을 통하여 EU가 지향하는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 농촌관광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즉, 농촌관광사업을 통해 조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한다. 따라서 EU에서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직접적으로는 농가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조건 불리지역 등 지역간 불균형개선과 농촌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U가 지원하고 있는 농촌관광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European Parliament, 1996). 첫째, 농촌지

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둘째, 자연과 전통 및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를 가져야 하고 셋째, 작은 규모로서 지역의 전통과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넷째, 농촌환경과 지역의 자원을 유지·보존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이어야 하고, 다섯째, 농촌지역의 역사와 경제 및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EU가 지원하는 농촌관광활동에는 농장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농촌지역의 생태관광, 등산, 사이클, 승마, 탐험, 스포츠와 건강관리, 사냥과 낚시, 체험학습, 문화유산답사, 소수민족 관광 등이 포함된다.

3.2.2. 프랑스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은 휴가를 즐기는 도시인들에게 농촌지역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값싸게 휴가를 지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인구의 도시 이출을 방지하고 농촌문화를 보존하며 농가의 소득을 얻는 관광행태의 성격을 지닌다.

자연과 레저를 즐기는 프랑스인들에게 값싸게 휴가를 지낼 수 있는 방안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모색되어 왔고 이의 대안 중의 하나가 농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빈 집들을 수리하여 도시 휴가자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도시인들의 휴가 수요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이고 농가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일이 된다.

프랑스의 농업기본법은 농업종사자가 운

⁵ 엄격히 EU의 농촌관광은 관광농장(farm tourism)의 성격이 강하다.

영하는 관광사업과 농산물 판매행위를 농업활동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종사자가 관광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며 보유 농지의 1/2 이하를 관광사업에 사용할 때, 관광 수입이 총수입의 10%를 넘지 않을 때 또는 관광수입이 10만 프랑을 넘지 않을 때, 수입의 1/2을 비과세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농업종사자가 농업학교 등에서 관광사업에 대한 연수를 받을 경우 농업경영자 연구보장기금이나 농업임금노동자 연구보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나 지자체는 농가의 임대 별장형 민박시설, 레저형 간이숙박 시설, B&B 민박시설, 어린이 민박시설, 농장 캠프장, 농장내 식당, 승마시설 등 스포츠 시설, 농장 체험시설 등에 대해서 보조 또는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3.2.3. 독 일

독일의 그린투어리즘은 「농가에서의 휴가」를 이라는 캐치프레이스가 대변하듯이 도시인들이 농가에서 체류하면서 농업과 지역문화를 체험하며 휴가를 즐기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창출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독일의 그린투어리즘은 1960년대 후반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알프스 산악지역의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농가들의 농업경영 유지가 어려워 지자 이들이 이농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악지대의

농가가 경영하는 축산을 관광과 연결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다. 바이에른주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농가에서 휴가를」 정책이 보편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민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농민연맹이나 농업신용은행도 민박경영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서비스협회는 민박경영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일농업협회는 민박농가 등록과 민박농가의 등급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경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이 그린투어리즘으로 지원하는 대상도 프랑스와 유사하다.

3.2.4. 영 국

영국의 그린투어리즘은 프랑스나 독일과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는 영국인에게는 농촌을 농촌다운게 유지·보존하는 수단의 하나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 1960년대의 농산물 과잉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자 농가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고자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에 따라서 영국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의 자연경관을 유지·보존하고 농촌에 향수를 지닌 도시의 휴가자들을 농촌에 유치하여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함

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민박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짓기보다는 전통적인 본래의 농촌모습을 유지하는 주택과 시설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농가가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고자 할 때, 타당성조사 지원금, 시설정비 지원금, 마케팅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엄격한 심사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소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그린투어리즘을 이끌어 갈 민간단체로 농장휴가협회(farm holiday bureau)⁶를 국가 재정에서 조직 육성하여 민박농가의 전국 네트워크 연결, 공동상표를 이용한 공동마케팅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민박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경관을 농촌다움게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농촌경관⁷을 복원·관리하고자 하는 농가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촌휴양지계획⁸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민박은 단순한 숙박 보다는 숙식을 함께하는 형태(bed and bread: B&B)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나 단체가 지원하는

그린투어리즘 대상은 프랑스나 독일과 대동소이하다.

3.2.5. 일 본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지역의 환경보존과 국토가꾸기,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적 건축물의 보존,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도시민에게 자연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1992년 7월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자문기관인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중간보고서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어서 1994년에 “농산촌 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1995년부터 그린투어리즘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농촌체제형 여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정비하고 농림어업형 체험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형 민박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며, 도시민의 농촌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민생활의 풍요로움과 농산어촌지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산촌 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시책방향을 보면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농촌체제형 여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촌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 정비는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 등

⁶ 1983년 국가지원으로 설립되어 5년간 국가의 지원을 받은 후 1989년에 협동조합으로 재편되어 회원 회비로 운영하는 등 재정적으로 자립하였다.

⁷ 전통적인 영국의 농촌경관은 ① 역사적 경관, ② 석회암지대의 초지경관, ③ 저지대의 평화로운 경관, ④ 수변경관, ⑤ 해안선 경관, ⑥ 구릉지 경관 등 6가지가 있다.

⁸ 의무적으로 휴경되는 농지에 대해 산책로 등을 조성할 경우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농촌체제형 여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농촌체제형 여가를 즐기려는 도시민을 수용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개선을 위해 교육·연수사업을 확대하며, 경영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일 등이다. 셋째, 도·농교류사업촉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농촌 체제형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도·농교류정보시스템의 네트워킹을 통해 도·농간의 교류체제가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마을 공동체와 마을의 농가가 중요한 시행 주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제3섹터 등이 운영하는 그린투어리즘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농가가 운영하는 농가 민박시설, 농가 레스토랑시설, 농산물 직매장, 농업관련 체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마을공동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 농업 테마파크 조성, 시민농원 조성, 마을 환경보전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전통문화 보전 사업, 농지·농장 오너제도 등을 통한 도·농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4.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4.1. 기본 방향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상품

화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린투어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을 농외소득을 올리는 수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린투어리즘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문화와 고유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해지기 때문에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전통과 생활문화를 함양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린투어리즘은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마을의 지역주민과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을 가꾸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은 1인 중심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린투어리즘을 마을단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주민들과 함께 그린투어리즘을 논의하고 관심있는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농촌지역의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취업가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민박과 농업·농촌 문화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은 노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은 마을의 청장년층과 노령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에서의

인적 교류는 불특정 다수의 단순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의 농가와 도시의 방문객이 친밀한 고객으로서 반복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생활,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방문객과 영접자 모두가 삶의 활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가꾸는 아름답고 푸르른 “녹색마을가꾸기운동”을 국토환경의 일부로서, 그리고 생활환경의 일부로서 지속적으로 가꾸어 가는 노력이 그린투어리즘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은 주민들의 소득활동이자 동시에 마을가꾸기운동이고 더 나아가 국토환경가꾸기운동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4.2. 추진 전략

그린투어리즘이 앞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4.2.1. 마을단위 접근

그린투어리즘을 접근함에 있어 EU에서와 같이 개별 농장단위로 접근하는 방식과 일본과 같이 마을이라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20~50ha 규모, 또는 그 이상의 넓은 농장을 지니고 있고 규모있는 저택과 넓은 초원과 과수원, 언덕과 시내, 계곡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장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농촌 체험관광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장 내에서 승마, 낚시, 등산, 워킹, 바베큐, 사냥, 농사 및 생활문화 체험 등 종합적인 관광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관광보다는 농장단위의 관광(farm tourism)이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된다.

일본의 농가는 유럽의 농가와 전혀 다른 경제·사회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농장 규모는 1.5ha 규모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극히 일부 농가를 제외하면 유럽과 같이 독립된 관광농장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농가 단위로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자본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효율이 지극히 낮다.

일본의 경우 하나의 마을 규모가 유럽 국가의 한 농장의 규모에 비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여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가꾸고 공동시설을 갖추어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는 그 마을 속에서 민박시설과 체험농장을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농업과 농촌의 조건이 일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 정책은 개별농장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과다하여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부실경영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할 경우 그 추진 단위는 마을공동체가 되고 농가들은 민박, 체험농장 운영, 농산물 및 특

산물 판매 등에서 개별 사업체의 성격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려는 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이웃 마을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지리적으로 이웃 마을과 연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수개 마을이 하나의 추진단위가 되어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린투어리즘을 마을단위로 접근할 때, 마을 공동체는 마을의 조경, 환경관리, 도로, 상하수도 등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회의실, 공동판매장,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개별 농가는 농가주택과 농장을 이용한 체험농장, 민박, 농가 음식점, 농산물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기존의 관광농원은 새로운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틀 속에서 마을의 경관과 농업, 전통문화 및 생활양식과 연계된 체험농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존의 관광농원은 지역의 그린투어리즘을 이끌어 가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은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은 그 대상이 농가, 농장, 마을 및 마을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자연경관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이 주도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마을은 공동체단위로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주민간의 합의를 이루고 그린투어리즘의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그 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까지의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에서 마을공동체는 주체가 아닌 객체적인 입장에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주도의 개발방식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지도·계몽과 함께 유용한 방식이다. 이 때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가 정착되고 참여농정의

표 1 마을단위 접근에 따른 공동체 및 개별농가 사업 구분

	마을 공동체 사업	주민 개별 사업
시 설	마을조경, 마을환경 정비, 주차장, 도로 정비, 테마공원, 숲가꾸기, 공연장, 하수처리시설, 깨끗한 강 살리기를 위한 수변정리, 스포츠시설	체험민박, 체험농장, 농산물 판매장, 농가 음식점, 관광농원 운영, 주말 및 시민농원 운영
홍 보	마을홍보	농가 홈페이지 운영
정부지원 형태	보조 및 기술지원	융자, 경영컨설팅 지원

수준이 현저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개발행정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농업생산 과정과 달리 그린투어리즘은 고도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주민 개개인의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경영 의사와 경영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그린투어리즘은 마을의 주민과 지도자의 주체적 참여가 중요하게 된다.

한편 마을단위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할 때, 마을의 경관과 조경, 환경관리,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마을회관, 주차장, 판매장과 같은 공공시설은 주민들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마을의 기반정비와 시설은 농가들이 투자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그린투어리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재정 및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주체간의 역할분담과 정부 역할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되지만 정부는 재정 및 제도정비를 통해 이를 지원하게 되므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에서 그린투어리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린투어리즘을 담당할 마을 주민과 지도자의 성의와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주민간의 합의 도출과 그린투어리즘을 실천할 다수의 주민 확보
- ② 마을환경 정비, 도로개선, 공공시설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부담
- ③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린투어리즘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계획에 대한 승인과 재정지원을 요청

- ④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농림업과 농산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할 능력 구비

- ⑥ 농림업·농산촌의 다원적 기능을 상품화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 구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마을이 제출한 그린투어리즘 계획서의 심의 및 지원 결정
- ② 그린투어리즘 실시마을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하수종합처리시설, 조경, 공공시설, 테마공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

- ③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④ 지역 내 그린투어리즘의 홍보 및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환 지원

마을단위 주민과 지자체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때, 중앙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린투어리즘의 실시를 위한 법과 규

정 등 제도화 지원

- ② 그린투어리즘 실시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 ③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와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④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지원
- ⑤ 그린투어리즘의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과 유형별 시범사업 실시
- ⑥ 그린투어리즘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지원조직 구성

4.2.4. 농촌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투자의 최소화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 마을조경과 공공시설의 정비, 체험형 민박을 위한 최소한의 숙박시설, 체험농장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규로 투자할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은 이와 같은 요건을 위한 투자재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의 농촌정비사업을 그린투어리즘 마을에 연계시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농촌정비 관련 투자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촌도로 및 마을도로 사업, 상하수도 사업, 하수처리시설사업, 주택개량사업 등을 그린투어리즘 마을과 연결하여 투자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과 연계가 어려운 조경이나 환경정비사업, 주차장,

테마공원조성 등 공공시설사업 등은 추가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4.3. 주요 정책 프로그램 개발

그린투어리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린투어리즘에 관심이 있는 마을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4.3.1.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려는 마을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마을을 선정하여 그린투어리즘 유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장화할 필요가 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및 농산촌문화를 체험할 소재가 있거나 개발할 여지가 충분하여 활발한 도·농 교류사업이 기대되는 마을 중에서 우선 선발하되, 자체적으로 농업체험, 농산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며, 체험형 민박을 희망하는 가구가 적어도 전체 가구의 1/3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그린투어리즘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마을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공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마을 주민들은 이와 같은 공공시설 정비에 필요한 토지를 자체적으로 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마을은 다양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고시를 통해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투어리즘 시범사업을 위한 고시와 시범마을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다.

- 1) 정부가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계획과 시범마을 선정 계획을 고시
- 2) 그린투어리즘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총의로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결의하고 「그린투어리즘 시범사업 3개년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3) 지방자치단체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예비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지원 계획을 첨부하여 도 경유 농림부에 지정을 신청
- 4) 농림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린투어리즘시범마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최종 확정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에 필요한 기반정비,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며 그린투어리즘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주민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체험형 민박시설, 주택개량, 마을환경과 기반조성

에 관련된 사업비는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각부처⁹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농촌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신규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4.3.2. 다양한 농림업·농산촌의 여가·

체험·교류 프로그램 개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머지않아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노령층을 중심으로 연금생활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국민관광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림업분야에서도 다양한 여가·체험·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은 성인근로자의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까지도 관광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고객층에 적합한 농림업·농산촌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광활동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대부분의 관광프로그램이 도시문화, 고궁, 위락활동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고유성을 찾으러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식상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고유한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 농촌지역

⁹ 농촌정비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림부 외에 농진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의 그린투어리즘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잠재적 고객으로 하는 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농산촌의 여가·체험·교류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유형별로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은 도·농교류의 형태에 따라서 농사체험형, 문화체험형, 환경·생태관찰형, 단순방문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 즉, 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교류·체험·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3.3.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는 주민과 마을지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린투어리즘은 하나의 관광서비스업인 만큼 방문하는 고객의 관광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고도의 서비스 정신, 경영자로서의 창의력 및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은 물론 현재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정신과 방문

객을 맞이하는 태도, 경영자로서의 창의력과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은 이를 담당하는 민간단체 또는 협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될 때까지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그린투어리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할 수 있다.

- 그린투어리즘의 의의와 추진 방법
- 그린투어리즘의 형태별 프로그램 내용과 프로그램 운용 방법
 - 농업·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 환경·생태관찰 관련 프로그램
 - 휴양·여가·스포츠형 프로그램
- 대상별 프로그램 관리법
 - 학생·학부모 대상 자연생태 및 농업·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 도시노인의 체류형 휴양·여가·체험 프로그램
 -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체험 프로그램
 - 외국인 대상 체험관광 프로그램
- 마을환경정비, 생태관리 및 조경 등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방법
- 체험학습형 도·농교류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방법
- 농촌 전통문화의 이해

- 식단 메뉴 작성, 조리 및 식품 위생관리 등
- 정부 및 지자체 시책 방향 및 금융·세제활용법
- 사업관리 및 경영기법
- 주민조직 관리 및 지도자의 리더쉽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매니지먼트 등
-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과 사업 내용의 홍보 및 정보교환 방법
- 국내외 사례 연구 등

그린투어리즘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은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의 직무훈련(OJT)과정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3~6개월 정도의 전문과정, 마을지도자, 사업체 경영자 및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1주 정도의 실무 워크숍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4. 그린투어리즘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운영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마을 주민과 경영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이외에 이 사업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매개자로 그린투어리즘 안내자, 체험학습 안내자, 기획자, 경영컨설턴트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 자격을 인증하여 그린투어리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 가이드는 지역을 방문하는 그린투어리즘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안

내, 체험학습 프로그램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을 방문하는 그린투어리즘 관광객들에게 현장을 안내 또는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마을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 가이드는 한 농가의 체험학습장을 담당하는 경영자일 수도 있고 마을의 전반적인 그린투어리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마을의 지도자일 수도 있다.

체험학습 안내자는 농가단위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에서 농림업의 작업과정을 지도해 주고, 농림업 작업 관련 질문에 응답해주며 체험학습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까지를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은 젊은이가 담당할 수도 있지만 영농활동에서 은퇴한 노령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들 노령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전문성을 체험학습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노령자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체험학습장에서 체험안내를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농림업 분야의 생산과 가공, 전통음식 요리, 김치 등 가공식품, 전통 목공예 및 금속공예, 도자기 및 옹기 제작, 전통음악, 농림어업 현장의 자연생태환경 소개 등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분야별 전통문화 기능 보유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도·농교류의 체험학습장 활용,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강사활동,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또는

연시활동을 하도록 하여 소득향상 기회를 넓히고 기능보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지닌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후계 인력을 양성하는 일과 경영컨설턴트의 자격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4.3.5. 도·농교류사업 추진에 의한 그린투어리즘 지원

우리나라에서 그린투어리즘을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 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도·농교류사업은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이 된다.

정부는 농·소·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해 왔다. 농(農)·소(消)·정(政)사업은 농민과 소비자와 농정당국자가 중앙 및 지방에서 일어나는 농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한 협의체이다. 즉, 농·소·정 협의체는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도시 소비자는 농촌으로부터 우수 농산물과 휴양과 여가, 농림업과 농촌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1999년도 농·소·정협력사업에 의한 도·농교류사업은 중앙에 있는 농업관련 기관, 소비자 단체, 농업인단체 등 31개 기관이 참여하여 농림업 및 농촌체험, 테마여행, 친환경농산물 판매, 축제 참가, 유통견학, 농지지킴이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 212천여명의 도시민이 참여하여 농림업

과 농촌문화체험과 중요 시책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병률외, 1999).

향후 농·소·정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확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농·소·정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그린투어리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업과 농촌문화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도·농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과성의 이벤트 참석, 단순 견학 또는 테마여행 등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소·정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단위에 있는 농림업관련 기관과 농업인단체보다는 군단위 이하의 지역에서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농림업 관련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단위의 농업인 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다고 해도 교류사업의 주체는 지역의 단체와 현지의 농업인이 되어야 도·농교류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인간적 만남과 교류가 가능해지고 농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소·정협력사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단위에서도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농·소·정협력사업은 중앙보다 도와 시·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독자적인 재정과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6. 녹색마을 가꾸기 및 경진대회

그린투어리즘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생활환경, 건전한 자연생태, 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이와 같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마을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육성할 수는 없으므로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을가꾸기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녹색마을이란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만큼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전통문화가 있고, 건전한 생활문화가 있는 마을로서 유기농산물이나 이와 동등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지향 마을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마을조성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기존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을가꾸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마을을 신규 조성사업에서 기존마을 개선 방식으로 전환할 때,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마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진다¹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마을가꾸기사업을 테마별로 다양하

게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함으로써 그린투어리즘의 토대가 되는 녹색마을가꾸기사업에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더 많은 교류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마을가꾸기사업 경진대회는 전국의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 마을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다른 마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녹색마을가꾸기사업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3.7.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고 있는 마을, 농가, 지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주고 한편으로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 파악과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주체간의 네트워킹으로 그린투어리즘에 관련된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농가, 마을, 지역, 그리고 중앙단위를 하나로 묶어 그린투어리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린투어리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농가와 마을, 군 단위 지역의 그린투어리즘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마을 및 농가단위의 상세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린투어리즘 제공자와 수요자가 사이버상

¹⁰ 현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개 지구당 40~50억원이 소요되므로 기존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을가꾸기 방식을 적용할 때, 10억원 이내에서 정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4~5배의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다.

에서 정보교환과 농림업·농산촌 문화체험을 위한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과 농가,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D/B화하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민간부문에서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중앙단위에서는 향후 설립될 「도·농교류센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시군, 마을, 농가는 그린투어리즘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수요자인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중앙의 포털 사이트에 링크시켜 운영하도록 한다.

4.3.8.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가칭

「도·농교류센터」 설립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린투어리즘이나 도·농교류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재단법인으로 가칭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도·농교류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농어촌기반공사 등 농촌개발과 그린투어리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하되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1)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2) 그린투어리즘 동향에 관한 정기·비정기 조사분석 실시 및 발표

- 3) 여가·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을경영사례 분석 등 농가·마을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 4) 그린투어리즘 관련 농가·마을의 등록 업무 수행 및 네트워킹과 홍보
- 5) 농업인 교육 및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용 및 자격제도 관리
- 6) 소비자·농업인단체와의 제휴·조정
- 7)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관한 농촌 주민 및 지도자 교육
- 8) 외국 유사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4.3.9. 그린투어리즘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그린투어리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위시하여 민박시설을 위한 주택개량, 체험농장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음식물 판매를 위한 식당시설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이나 시설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각각 개별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실시도 어렵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¹¹⁾.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① 그린투어리즘 실시에 필요

¹¹⁾ 일본의 경우 WTO 출범과 함께 「농산어촌채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4년도에 제정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 행정 기능 및 기반정비에 관련되는 사항 ② 그린투어리즘 실시에 관련되는 사항의 농지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적용 특례, ③ 농림업·농산촌체험민박 등 그린투어리즘 추진 마을 및 농가의 등록 규정, ④ 그린투어리즘 실시 마을 및 농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⑤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담당할 공익법인인의 설립근거 및 기금설치와 운용근거 등이 담겨져야 한다.

5. 결 론

그린투어리즘이 농의소득과 지역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마을의 지역주민과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을 가꾸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한 농식품의 생산과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전통과 생활문화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농림업·농산촌의 문화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노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

경, 쾌적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가꾸는 아름답고 푸르른 “녹색마을가꾸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이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마을단위로 접근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을 마을단위로 접근할 때,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조경, 환경관리, 도로, 상수도, 회의실, 전시·판매실, 주차장 등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관광농원 같은 시설 과잉투자에 의한 부실경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체험농장, 체험민박, 농가 음식점, 농산물 판매점 등은 개별 농가가 개별사업으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린투어리즘은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 마을은 공동체단위로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주민간의 합의를 이루고 그린투어리즘의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그 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재정 및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제도정비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기반구축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농촌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과 그린투어리즘을 연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신규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 마을조경과 공공시설의

정비, 체험형 민박을 위한 최소한의 숙박시설, 체험농장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을 위한 투자재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의 농촌정비사업을 그린투어리즘 마을에 연계시켜 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이 도입되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함께 마을단위의 그린투어리즘의 인프라 구축, 마을 및 지자체 단위의 인적자원 및 경영능력 개발과 도시와 농촌을 매개해 주는 매개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프로그램 지원이 요청된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을 통하여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교육장화해야 하며 전국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을가꾸기사업을 전개하여 그린투어리즘의 기반을 확장·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마을조성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기존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을가꾸기 방식을 도입하고 정주권개발 등 농촌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을 연계시켜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마을가꾸기사업을 테마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매년 녹색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을 시상하고 홍보하여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육성하도록 한다.

둘째, 마을과 지방자치단체의 그린투어리즘 추진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는 주민, 지도자, 공무원에 대한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도·농교류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소·정협력사업을 도·농교류사업 중심으로 강화하고 군단위 이하에서 활동하는 농업관련 단체가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지원체제를 개편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과 연결해 주는 지역단위의 메카니즘을 강화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그린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마을 및 지역단위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이끌어 갈 그린투어리즘 안내자 및 체험가이드, 기능인력 등 전문인력의 육성과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농가와 마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그린투어리즘 수요자에게 연결해주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가칭 「도·농교류센터」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그린투어리즘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린투어리즘 실시에 따른 재정지원 및 「도·농교류센터」 등 지원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 및 마을단위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할 때 개별 법에서 저촉되는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그린투어리즘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춘성. 2001. “녹색교류를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 한국관광농업학회.
- 김범수. 1997.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Vol.3(1.2) 한국산림휴양학회
- 김범수. 1999. “그린투어리즘과 지역활성화.” 「한국관광농업학회 · 한국산림휴양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산림휴양학회 · 한국관광농업학회. 서울.
- 김홍운. 1988. 관광자원론. 일신사.
- 농림부. 2001.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 농림부 내부자료.
- 류선무. 1989. 관광농업의 경영과 개발. 형설출판사. 서울.
- 류선무. 1999. 농산촌의 관광농업 도입과 지역경영전략, 「한국관광농업학회 · 한국산림휴양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산림휴양학회 · 한국관광농업학회. 서울.
- 미야자키 타게시.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한국관광농업학회 · 한국산림휴양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 박석희. 2001. “자연마을을 이용한 생태관광지역 가꾸기 방안.”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한국관광농업학회.
- 박시현 등. 2001. “유럽 주요국에서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행정적 지원.”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한국관광농업학회.
- 박영수, 심경구, 이광석. 1995. “한국관광농원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관광농업연구」. 1995. Vol. 2-1.
- 유승우. 민상기. 1997.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 R3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문순철. 1998. “농촌관광개발의 의의와 중요성.” 「한국관광농업연구」. 1998. Vol. 5-1.
- 이호철. 2000.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 방안: 대구시 약초 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 정기환, 이상문, 민상기. 1996. 「어촌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C96-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문순철, 민상기. 1999. 「농촌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R3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관광연구원. 2001. 국민관광수요예측자료 (내부자료). 한국관광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2001농업전망」. M47. 山岐光博 · 小山善彦 · 大島順子. 「グリーン・ツーリズム」. 家の光協會. 1993.
- Ashworth, G.,J., 1992. Planning for Sustainable Tourism-A Review Article. TPR. 63(3).
- Chow, Willard T., 1980. Integrating Tourism with Rural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7-4.
- Cohen, Erick., 1987. Alternative Tourism-A Critiqu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2-2.
- Cooper, C. P. and Ozdil, I., 1992. From Mass to Responsible Tourism: the Turkish Experience, Tourism Management. 13-4.
- Dernoi, L. A., 1991. About Rural & Farm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
- European Parliament. 1996. Policy on Rural Tourism in the European Union, Working document, . Division for Agriculture, Fisheries, Forestry and Rural Development, Eropean Union.
- Gunn, Clare A., 1988. Tourism Planning, (New York: Taylor & Francis).
- Hill, Brial J., 1993. The Future of Rural Tourism, Park & Recreation, September.